

#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17-21 |
|----------|-------|

발의년월일 : 2017. 3. 2.

발 의 자 : 이봉수·강희향·백남환  
신종갑·유호렬·이동주  
이학래·이필레·전승학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가. 현재 한·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곳곳에 설치하여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되새기고 있음
- 나.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일본군 관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게 하고자 상암택지개발 시 설치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임.
- 다. 일본군 관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 3. 이송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련기관

#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풀기 어려운 현안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한 일본이 자국대사를 귀국시키고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중단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본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위안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없이 10억 엔의 돈을 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한 반성이나 대책없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만을 요구하는 일본의 그릇된 태도에 5천만 국민은 분노와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시민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후 자발적인 국민모금을 통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도 세워져 위안부 실상을 알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조선과 해운의 대량 실직,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문화적 보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일본군 관사는 1930년대 초 일본군 장교용 관사로 사용되던 곳으로 상암택지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난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 놓은 곳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상암동 일본군 관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포도 아픈 과거의 슬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상암동 일본군 관사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없이 돈을 내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상암동 일본군관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7. 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